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833-9030

전주매일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2017년 12월 6일 수요일 (음 10월 19일) 제194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탄소국가산단 입주기업 유치 나섰다

### 전주시, 투자유치 설명회

전주시가 국가사업으로 조성되는 탄소소재 국가산단에 입주할 기업 유치를 나섰다.

시는 5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에 투자를 계획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입주예정기업 100개 업체의 관계자 150여명을 초청해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투자설명회는 입주예정기업들에게 투자처인 전주의 현황을 소개하고, 직접 눈으로 전주가 보유한 탄소관련 인프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 자리에서 '탄소산업 중심도시 전주'를 주제로 전주의 현황과 교육, 교통 여건에 대해 소개하고, 기업에 최적화된 인프라 제공과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지원 등 지원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또,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전주시가 5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에 투자를 계획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입주예정기업 100개 업체의 관계자 150여명을 초청해 투자유치 설명회를 연 가운데 김승수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탄소소재 산단 조성 계획 설명

2020년까지 대기업 2곳 이상

중소기업 100여곳 목표

영향철강과 협약도 체결

또한,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탄소복합재 상용화 기술센터를 견학하고, 이전투자기업인 (주)비니텍을 방문해 전주시가 보유한 탄소관련 인프라와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보 등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전주탄소소재 국가산단단지 조성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과 고랑동 일원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680억원을 들여 63만8000㎡ 규모의 탄소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약 130여개 기업이 입주희망을 제출한 상태이다. 이 사업은 최근 정부의 최종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AHP)에서 통과 기준치인 0.5를 넘어선 0.582로 평가되면서 사실상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시는 향후에도 입주예정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세일즈를 통해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19만평)에 맞춰 오는 2020년까지 대기업 2곳 이상, 중소기업 100여 곳 이상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단지가 탄소가본소재부터 최첨단 항공부품 생산까지 아우르는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하면, 6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30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탄소소재 국가산단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탄소관련 기업과 신성장 분야의 기업 등을 중심으로 유망 중소기업 100개 업체를 투자예정기업으로 선정하고 꾸준히 방문상담을 실시해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단지가 조성되면 국내 탄소관련 기업들이 이전하고, 기존 기업들과 동반성장을 이뤄내 전주가 세계적인 탄소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먹거리인 탄소산업 발전을 견인할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날 투자설명회에서 일반 산업단지 내 이전 투자계획을 확정한 (유)영창철강(대표 이현충)과 MOU를 체결했으며, 영창철강은 이날 협약에 따라 향후 총 70억을 투자해 6133㎡(1858평)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고 20여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김영주 박해정 장효람 최성휘 신희섭

### 도교육청, 서기관 승진 대상자 5명 선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역량 평가를 통해 2018년 4급 서기관 승진대상자 교육행정직 4명과 시설직 각 1명 등 총 5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서기관 승진 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역량 중심의 평가 시스템 구현으로 고품질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과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4급 승진에 역량평가를 도입했다.

도교육청 4급 승진 심사는 기존에 인사위원회 결의를 통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대로 승진자를 결정하던 방식을 인사위원회에 역량평가와 현장평가 결과, 자기기술서를 심의자료로

제공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예정 인원의 2배수를 심의 추천하면 교육감이 최종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도교육청은 승진 심사 대상자에게 지난 8월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11월 중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평가를 받았으며, 지난 2일 역량 평가를 실시했다.

한편, 이번 서기관 승진 대상자들은 내년 1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되며 서기관 승진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 ▲김영주 시설과 ▲박해정 총무과 명부 순위대로 승진자를 결정하던 방식을 인사위원회에 역량평가와 현장평가 결과, 자기기술서를 심의자료로
- ▲장효람 전북교육문화회관 ▲최성휘 전북교육연수원 ▲신희섭 부안교육문화회관 /이삼민 기자

## “평창올림픽 기간동안 전북으로 많이 와주세요”

도, 올림픽 연계 겨울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추진  
무주 태권도원·전주 한옥마을 등 대표관광지 여의 외국인 셔틀버스 '서울~전북'에서 '강원~전북' 확대

전북도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겨울철 관광객 유치를 추진한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동안 강원도 및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무주 덕유산리조트와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인 태권도원, 한옥마을 등 대표관광지를 여의 겨울철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먼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을 전후하여 전북도외국인관광셔틀버스 '서울-전북'의 기존 운영 노선을 '강원-전북'으로 확대해 올림픽 경기장을 방문한 외국인들을 전북으로 끌어온다는 복안이다.

또, 2017 전북방문의 해를 계기로 선정한 전북도 전담여행사 6개 여행사와 함께 서울, 강원도와 전북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공동 기획,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에 대한 욕구가 동계올림픽으로 인해

증폭되면서 겨울철 방한 중국인 여행객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중국인관광객 유치에 주안점을 두고 마케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한편, 전북도는 겨울상품 홍보를 위해 백화점, 길거리, 주요행사장 등 국내 주요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해 전북 관광브랜드를 노출하는 등 홍보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오는 12일과 13일에는 서울에서 여행사 및 홍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관광설명회 및 B2B 상담회를 개최하고 흥대 앞 길거리 캠페인을 실시한다.

김인태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은 전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로 단기간에 많은 외국인들을 전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회다"며 "전북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다각적으로 활용해 많은 관광객이 전북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서남대 정상화계획서 교육부 제출

정식 접수 아닌 임시 접수

임시이사회 이번주 내 소집

장소·시간은 정해지지 않음

폐쇄 위기에 처한 서남대학교(남원 소재)를 살리기 위한 학교 정상화 계획서가 교육부에 접수됐다.

그러나 서남대 임시이사회를 통한 정수가 아닌 민립 정식 접수가 아닌 가접수(임시 접수)였다.

5일 서남대측에 따르면 이날 새로운 재정이여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부산 온종합병원의 정상화계획서가 교육부에 접수됐다.

계획서에는 서남대 설립자의 횡령금 변제와 발전기금 조성 등 학교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계획서는 가접수됐다. "서남대 임시이사회를 통해 접수된 것이 아니다. 이사회를 통해 완벽하게 계획서가 들어오면 사회분쟁조정위원회로 서류를 넘기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당초 예고한대로 서남대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후 법인과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같은 교육부의 입장이 나오면서 서남대 임시이사회도 이번 주 안에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아직 장소와 시간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 한눈에 반하다

국립승리사립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문화의도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